

與 비대위, 이영조 공천 재의 요구

‘5·18은 민중반란’ 논란... 공천 철회 목소리 높아

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무효 가능성 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영조 '바른 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의 4·11 총선 서울 강남을 전락공천에 대해 공천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위) 위원장 시절 광주 5·18과 제주 4·3 사건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점 때문에 공천철회를 촉구하는 관련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공동대표의 공천은 공천위 재논

의를 거친 후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13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관이나 그런 면에서 여당의 채신 의지와 정체성과 어긋나는 후보일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견을 낼 것”이라며 “저희가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고 재심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략공천자에 대해서 32명으로 구성된 국민공천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

치게 된다. 국민추진위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 의견을 비대에 올리면 비대는 부적격 의견의 적정성을 판단해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추진위원단 첫 회의는 오는 15일로 예상된다. 이 공동대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경우, 공천위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내에서 이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다른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으니 나도 써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같릴리 교회 목사로 “새누리당은 과거 군사독재 등과 절연해야 하는데, 그런 역사적식을 가진 사람을 공천했다는 것이 국민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을 뒤로 보고 그런 사람을 공천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이날 공천발표를 마친 뒤 “이 공동대표의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검토한 뒤 공천을 확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지금껏 나온 사안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전남 현역의원이 수천만원 돈 전달”

“읍면 단합대회 비용” 담당조직책 폭로

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조직책을 통해 지역구 읍·면 단합대회 대회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터져 나온 폭로여서 경선 관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A군 면 담당조직책인 김모(49)씨는 13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난해 말 조직책에게 거액의 돈

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읍·면 단합대회 때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다른 면 지역 담당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그 돈의 일부인 100만원을 다른 읍면 조직책으로부터 받아 식사 제공 등에 사용했다”며 “이 부분은 선관위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수천만원 의혹 부분도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를 조직책에서 빼버리는 등 배신감이 들어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은 이날 제기된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돈 거래는 모르는 일이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나온 상대 후보 측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남 경선 현장투표소 23곳 확정

14일과 16일 실시되는 민주당 전남 8개 경선지역의 현장투표소가 23곳으로 확정됐다.

전남 선관위 및 지역 선관위 등과 협의해 확정된 현장투표소는 해당 시·군 당 1곳을 원칙으로 하되 설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의 경우 추가 설치토록 예의를 썼다. 이에 따라 현장투표소는 완도군 2곳, 신안군 4곳으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한 곳씩 설치된다. 다음은 지역별·경선 일정별 현장투표소.

- △14일
 - △여수 갑=여수시의회 회의실
 - △순천=순천시 선관위
 - △곡성=곡성군 선관위
 - △나주=나주시 선관위
 - △화순=화순군 선관위
 - △고흥=고흥군 선관위
 - △보성=보성군 선관위
 - △장흥=장흥군 선관위
 - △강진=강진군 선관위
 - △영암=영암군 선관위
 - △해남=해남문화예술회관
 - △완도=문화체육센터(완도읍·군외면·신지면·청산면·노화읍·보길면·소안면), 해동복지회관(금일읍·약산
- △16일
 - △무안=무안군 선관위
 - △신안=안해농협 회의실(안해읍·하의면·신의면·장산면),북 신안농협 회의실(회의면·도초농협 회의실(도초면·비금면·흑산면), 안좌농협 회의실(안좌면·안태면·자은면·팔금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과거사위원회장 시절 논문 ‘popular revolt’ 표현이 문제

■ 새누리 이영조 5·18발언 논란 전말은

4·11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표현한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이 후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장 시절인 지

난 2010년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을 각각 ‘popular revolt’, ‘communist-led rebellion’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란’, 제주 4·3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했다고 비

판하자 관련 단체들이 이 후보의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13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영문으로 그냥 쓴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단어는 수천 단어에 이르는 긴 논문 가운데서 딱 두 단어인데 특정 언론에서 이상하게 번역을 해 그것이 그냥 인터넷에서 퍼질질을 하는 과정에서 확산한 걸로 생각한다”며 “‘popular revolt’란 표현은 민중반란이 아니라 민중봉기, 민중항쟁 정도의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광주 revolt, popular revolt’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만약 제가 민중반란이라고 했다면 5·18 기념재단도 마찬가지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 4·3항쟁을 ‘communist-led rebellion’이라고 쓴 데 대해 “공산주의자가 주도했다고 했지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경기자 jkpark@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나오나

강철환·안찬일 새누리 비례 공천 신청

강철환·안찬일 등 2명이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천을 신청,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이자 북한전략센터 대표인 강씨는 지난 10일 공천신청을 했다. 평양 출신인 강 대표는 9세 때 할아버지의 반역죄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로 끌려갔다 10년 만에 풀려났다.

이후 북한을 탈출, 1992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복송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다”며 “여의도에 가게 된다면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와 중국 내 탈북자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탈북자 의원 1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탈북자 출신 1호 박사로 유명한 안 소장은 현재 국민생각(대표 박세일)의 최고위원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민간인 불법사찰 靑 개입의혹 재수사해야”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약 회의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실행하고 검찰이 앞장서 은폐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자체 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범죄인데, 청와대까지 나서 증거인멸

을 시도한 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했을 뿐 꼬리 자르기가 수사,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로 일관했다”며 “워터게이트도 도청 자체보다 거짓말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 폐지·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탈북자 문제 몸싸움



안영환 새누리당 의원 중국에 복송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HRC) 회의장에서 12일(현지시간) 탈북자 복송저지 운동을 위해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충돌은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마르주게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어 서서평 북한대사가 짙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를 떠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대표단은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는 서 대사에다가 다가 복송 탈북자 탄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대화를 시도했다. 서 대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회의를 떠나려 하자 새누리당 북한 인권위원장인 이은재 의원과 같은 당 안영환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서 대사를 에

워한 채 큰 목소리로 “탈북자를 탄압하게 치 못한 충돌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일본 대표단의 발언이 중단되는 등 각국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잠시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목포옹해동(목서실) 대872m2, 건2929m2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4억9천	목포상동(유홍주점) 대980m2, 건1057m2 감정가 19억9천 최저가 11억1천	수기동 [12층관광호] 대923m2, 27588m2 감정가 74억8천 최저가 18억7천	동명동[고시원] 대1060m2, 222555m2 감정가 22억5천 최저가 14억4천	신안동[근린시설] 대445m2, 21088m2 감정가 10억9천 최저가 4억6천	순천상동(유호스텔) 대1559m2, 23498m2 감정가 28억9천 최저가 12억7천	동양동(다가구) 대210m2, 21414m2 감정가 4억 최저가 2억6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강원정선(관광호) ▷대지 993평 ▷건물 4989평 ▷감정가 85억 ▷매매가 30억(협의후결정)	대전(웨딩홀) ▷대지 958평 ▷건물 5346평 ▷감정가 222억9천 ▷매매가 130억(협의후결정)	광주 쌍영동(유홍시설)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해남 명광동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29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츠)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곡성석곡 공장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순천 조례동(주차빌딩) ▷대지 646평 ▷건물 1708평 ▷감정가 43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광역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생활주택부지매매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737평
 ▶도시형생활주택 (29평형 아파트) 39세대 건축허가포함
 ▶매매가 14억 5천만원 (조정가)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림팀장 010-9900-3002 근린주택 박미림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보증금결제후 실인수가 3천만원 (H.010-6654-6888)

(주)호남랜드
 상무지구 사형양 내강사광주전남지사유지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 옥상) 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 5,000㎡ (1,500평) 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대료 별도지급

사업성 10,000㎡ (3,000평) 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을 입구 휴게소 대지 4,666㎡ (1,412평), 연면적 1,130㎡ (342평), 식당, 매점, 현재영업중, 매매가 9억원.

Tel : 대표 062-233-2222
 직통 062-373-3939, HP : 010-3616-8698

(광주광역시 남포동, 대인동 소방서건물)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Motel,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영일식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3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포동, 대인동 소방서건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 복합상가 1층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1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1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1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토 지(매매)

- (상무지구) 1469㎡ (142평) - 매가 평당 1,200만원 (유용가능)
- (상무지구) 1833㎡ (252평) - 평당 1,200만원 (상무지구) (변화가능)
- (상무지구) 1,980㎡ (600평) - 평당 1,200만원 (상무지구) (유용가능)
- (상무지구) 3,400㎡ (91,000평) - 평당 750만원 (시정인) (원사유, 오피스텔 등 적합)
- (동림지구) 중수구지, 유양 ~ 하남 간대로면 4,470㎡ (91,352평) - 평당 330만원 (예시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따미나 전화 주십시오★

☎ (FAX) 383-5221 ☎ 011-608-5221 (상무지구 이마루빌딩 1층)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민군 변산반도 펜션 전문)

- 경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 2중주거지역, 당 2334㎡ 매 12억
- 한도전, 계획도로 개통시 지가 상승
- 복합상가 1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1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1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 1,200만원(26억)

저희는 변산반도 펜션 개발 전문업소로서 펜션 운영시 투자 대비 손실 25% 이상 이 보장된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세권 원룸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펜션 사업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062-952-5960, 010-8004-5900